

#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 서민은 괴롭다

### 가계대출 사상 최대속 금리 오름세...부채 1000조 돌파

### 생수 등 생필품 잇단 인상...전기료·기름값도 대기중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융권의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벼구름'이 걸 전망이다.

당장 지난주 생수 등 생필품의 소비자 가격이 또 올랐고, 올 7월 시행되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전기료 인상 전망과 함께 지난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인하정책도 완원이 예정돼 가계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르면서 대출이 많은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금리 가파른 상승 = 가계부채가 최악의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양도성에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27~6.57%로 고시해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인상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20일 현재 4.86~6.30%와 5.16~6.56%로 지난주 초보다 각각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개인 금융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내놓은 '2011년 4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동향'을 보면 4월 광주·전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은 4502억원 늘어나 전월(4135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이 전월(1008억원)에 이어 11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원금상환 없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가계 부실'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

◇생필품 잇단 인상...전기요금·기름값 대기중 = 생수시장 1위인 '제주삼다수'는 20일부터 0.5ℓ·2ℓ 제품의 출고가를 10%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 유통업체들은 저마다 가격을 인상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2ℓ 제품의 가격이 830원에서 910원으로 9.6% 올랐다.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밀가루와 설탕, 계란 등의 영향으로 제빵업체도 가격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제빵 프랜차이즈 푸레쥬르는 지난 15일부터 빵 28종에 대해 소비자 가격을 평균 8% 올렸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업체도 조만간 가격인상 행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8월부터 전기요금이 오

를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수입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늘어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예쓰오일 등 정유 3사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한시로 시행하고 있는 기름값 할인 정책은 다음달 6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8달 100원씩 인하되던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이다.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8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보통휘발유 9달 평균가격은 각각 1890.88원, 1894.63원이지만 인하정책이 환원되면 유가 변동폭에 따라 다음달 6월 이후 다시 8달 2000원에 진입할 수도 있다.

■ 주간 증시 포커스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주시

'성수기' 레저·항공주 유망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며 장종 2008pt까지 밀리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그리스 지원 방법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제조업지표의 부진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을 자극한 탓이다. 대내적으로는 프라이닝 시즌을 앞두고 IT업종의 2/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KOSPI가 2030선에서 가까스로 지지가 되고 있지만 그리스 처리 방향에 따라 언제든 2000선을 위협할 기세다. 다행히 지난주 KOSPI가 주초대비 15pt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장종 변동성이 여전히 2%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경기둔화 우려가 불거질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은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이다. 특히 6월은 2분기 실적 이 마감되는 달인 만큼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이 더욱 부담스럽다. 아직까지 실적 전망치의 큰 폭 하향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산업생산 둔화는 기업의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7일 국내 증시에서 IT 업종의 급락이 지수 전반의 하락을 초래했는데, 하락을 주도했던 원인은 2분기 실적 하향 조정에 있었다. 결국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의 하향 조정이 이제 가지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도 역시 그리스 사태의 처리방향이 될 전망이다. CDS 프리미엄이나 국제수익률이 이미 디폴트의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현지시간 19일)나 EU 정상회담(23~24일)에서 자치 가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차례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최근의 당면 문제가 디폴트 가능성보다는 지원방식에 대한 각국의 이견에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그동안의 강력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5월 경제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6월을 고비로 긴축강도가 완화되면서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경기 모델링이 둔화되고 있지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경기 모델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경기에 대한 지나친 비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KOSPI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 지수대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한다. 이익 모델링이 최근 상대적으로 양호해지고 있는 내수 관련주들이 유망해 보이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내구소비재 관련주, 장기적인 포석으로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등 소비재업종, 주 5일제 수업 시행과 성수기 도래로 수혜를 받게 될 레저·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기존 주도주의 경우에는 이익 모델링이 여전히 양호한 자동차 및 부품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요금 38% 저렴한 통신사 등장

### 아이즈비전, 내달부터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휴대전화 1만원만 충전해 주십시오"

교통카드처럼 휴대전화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

아이즈비전은 19일 SK텔레콤과 음성 MVNO 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선불요금제보다 최대 38% 이상 저렴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MVNO는 기지국 망을 갖추고 있는 MNO(SK, KT, LGU+)의 통신망을 임대해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음성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이즈비전이 처음으로,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확보하고 있다.

아이즈비전은 선불 이동전화 브랜드명을 '아이즈'(eyes)로 정하고 월 기본료 0~9000원, 초당 음성통화료 2~3.8원, 초당 영상통화료 5.5원, SMS(단문메시지) 22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종류의 선불요금제를 선보인다.

아이즈비전의 초당 음성통화료가 3.8원인 PPS일반요금제의 경우 초당 4.8원인 SK텔레콤의 PPS 일반요금제보다 21% 가장 저렴하다. 또 하루 기본료 166원에 초당 2.4원인 아이즈비전의 PPS50 요금제는 하루 기본료 166원에 초당 3.9원인 SK텔레콤의 PPS 라이트보다 38% 가장 싸다. 아이즈비전은 주요 이용층은 외국인인과 학생 등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국전쟁 유족 돕기 바자회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8층 행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 한국전쟁 유족 돕기 사랑의 대바자회'에 많은 고객들이 모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23일까지 이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은 6·25 희생 유족의 손자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 "골목슈퍼 내년까지 1만개 육성"

### 중소기업청 '1기관 1시장' 등 활성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청이 나들가게 집중 육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중소기업청장은 17일부터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과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

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골목슈퍼인 나들가게를 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현재 5300여개인 나들가게를 내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재래시장이 자매결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1기관 1시장' 정책도 추진해 재래시장 지원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7곳의 상권을 선정해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 설치,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재래시장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사업' 등에도 나선다.

중기청의 발표 이후 각 부처 장·차관들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방안,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대신증권, 오늘 진월동서 투자설명회

대신증권이 20일 오후 3시10분 광주시 남구 진월동 아이안과빌딩 2층 광주지점에서 이전 기념 투자 설명회를 연다.

이날 투자 설명회는 홍순표 시장전략

팀장이 고객들에게 올해 하반기 증시전망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광주지점은 최근 동구 금남로 4가에서 남구로 지점을 이전했다.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 전복장이터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이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이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